

투데이 칼럼

이제는 환경축산을 실천할 때

요즘 농촌에서 돼지막(돼지우리)이나 소막(외양간)을 찾아보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도 수십년전까지만 해도 헛간 한편에 소막이 있었고, 구석진 담벼락의 어슬픈 돼지막에 돼지 한 두 마리씩 키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당시 가축은 단백질을 책임지는 주요 공급원이었으며, 특히 소는 농사에 매우 중요한 노동력이었고 소득원으로서, 재산목록 제1호를 차지했다.

이후, 도시의 산업화 붐에 따른 청?장년층의 이농현상은 농촌인구의 고령화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노동력의 급격한 감소는 고령의 소농인들을 영농에서 물러나게 하였으며, 정책적으로도 영농 기계화를 표방하며 대규모 영농 중심의 전업농을 육성해 나갔다.

이에 축산도 경종농에서 분업화를 시작하면서 축사(우사, 돈사, 계사 등)와 계열화사업장 시설이 점차 확산되었고, 사육두수의 규모화는 축종별로 전문화?전업화를 이휘 지극의 축산인이 자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가축사육이 규모화되면서 갖가지 사회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축산시설(악취배출시설)의 취약성으로 수질오염과 악취 등 환경문제가 따른 집단민원 발생, 밀식?밀폐공간 사육방식과 사육환경에 대



차 주연
창수군 축산과장

한 동물학대 비판여론, 그리고 저품질?저가격으로 대량생산 되는 외국 곡물(GMO) 유전자변형 생물체) 곡물 사료 급여에 따른 면역력 저하는 가축 전염병 발생을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가금류에 발생하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와 우제류에 발생하는 구제역 그리고 브루셀라, 결핵 등의 전염병 발생 이유도 이러한 사육방식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

특히, 구제역과 AI는 그 발생원인과 전염경로가 아직 명확하게 규명된 것은 없지만, 사육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좁은 공간에서의 대량 밀식사육과 공장식 밀폐(무창) 시설의 사육방식이 질병 발생의 주요 원인이라는 데 공감대가 크다.

그 동안에 발생한 구제역과 AI 그리고 브루셀라, 결핵 등의 가축 전염병은 수많은 가축을 살처분하게 만들었고,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백신접종과 약품 살포로 사육농가와 국가에 심적, 재정적으로 큰 손실을 입히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더욱 심각한 우려는 전염병이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러한 사태가 확산될 시 축산업 위기와 식량산업의 불균형으로 축산정책과 국민 식생활에 커다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온도가 상승하면서 지금은 소강상태에 있지만, 전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가축방역을 범정부차원의 전방위적인 대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가축방역을 "제2의 국방"이라고 말한다.

이처럼 심각한 구제역과 AI 등의 가축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품질 좋은 국내산 조사료 재배로 자급사료 급여를 통한 자급축산 실현과 축산과 경종이 상호 보완된 순환농업의 확산, 자연친화적인 사

육시설과 적정규모의 사육환경을 갖추는 일이다.

최근 들어 축산 선도농가를 보면 자연친화적인 사육시설에 동물복지 실천과 농장 내부에 연못을 만들고 주변에 조경수를 심어 악취를 줄이는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축사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무척 다들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정부에서도 동물복지축산 인증농장, 깨끗한 축산 지정농장 그리고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등 환경축산을 실천하는 농가에 대하여 깨끗한 축사환경조성사업과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환경축산에 대한 정책을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축산의 본질상 환경축산을 온전하게 이루기에는 현실적, 재정적으로 분명히 한계가 있다. 하지만,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가축 전염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정책적인 뒷받침과 함께 개별 축산농가의 자구적인 실천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환경축산 실천은 축산농가를 위하고 국내 축산업의 안정화를 도모하는 길이며,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환경권)를 부여받게 해 주는 기본좋은 배려이기에 이제는 환경축산을 실천할 때가 아닐런지.

사설

전북 발전은 예산 증액이 말한다

전북 발전은 예산 증액이 말한다. 대폭 증액된 예산 확보가 없다면 발전 계획은 그 어떤 것이라도 무용하다. 아무리 거창하게 공표를 했다해도 그것은 그렇다. 전북도가 증액된 예산 확보를 위해 시동을 걸어야 할 시점이기에 하는 말이다. 그래서 여기 다시 또 할 말이 있다. 지역발전을 약속하던 프로젝트 사업들이 어찌 이상하다. 지금은 행방이 묘연한 까닭이다. 사업 발굴과 함께 청사도 그리기가 요란했는데 아직은 그 뿐이니 허탈하다. 전북도는 발전 청사진 공표에 걸맞게 예산 확보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이 신규 사업들을 발굴했던 거에 대해서 짚어볼 바가 있다. 사업 발굴만이 능사가 아니지 않아서 말이다. 사업을 발굴했으면 지역의 발전과 연결돼야만 하는데 아직은 그게 없다. 물론 이같은 지적은 전북도와 전발연을 탓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는 강한 추진력을 보

여주어야 한다. 도민들은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추경 예산이 당초 상정한 것보다 증액된 것이라지만 도민들은 그에 의미를 주지 않고 있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기동 중단과 한국 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생각하면 그 정도로는 약파이다. 그 정도의 추경 예산으로는 대안이 된다고 말할 수 없다. 그러므로 지난해와 올해 이낙연 총리가 말했던 발언들에 끝이 아니라 믿음을 주어서는 안된다. 이낙연 총리는 전북을 방문할 때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대책을 찾겠다" 등의 말을 했지만 지금까지 달라진 것은 없다.

내년도 예산이 소액에 그치는 증액이라면 곤란하다. 전북도는 가일층 노력해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각각의 사업을 반드시 추진시켜야만 한다. 구체적으로 추진 되는 사업이 아니라 지역 발전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의 낙후를 떨쳐버리려면 예산 증액의 당위성을 더 설득해야 한다. 각각의 사업들을 분께도에 올려놓아야만 한다는 지적이다. 그걸 위해서 도지사를 비롯해 고위 관계자들은 힘써야겠다.

국가균형발전은 남북축 아니 동서축으로

도지사가 저번에 국가균형발전 비전선포식에서 한 말을 되새기 고자 한다. 도지사는 그때 국가의 발전의 틀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북을 축으로 국가를 발전시켜왔다면 이제는 동서를 축으로 해야 한다고 한 말이 그것이다. 분단 이후 한국은 수십 년 동안 남북을 축으로 발전의 판도를 그려온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서울과 대구와 부산이 비대해졌고 중간 지점의 신흥도시 대전이 광역시로 급성장했다. 1949년에 전주까지 승격되었을 때 대전은 이쪽의 태인과 함께 읍이었던 뿐인데 말이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게 옛적의 일이라도 격세지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 지금은 동서 발전을 축으로 지방 발전을 도모할 때이다. 우리 전북의 경우는 동쪽이 경부이고 경남이다. 전북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경북과 경남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경북과 경남도 공감할 만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함께 추진하는 게 전북 발전의 절경이 되리라는 판단이다. 그러려면 동서 철도 건설 등 협안을 두고서 머리를 맞대는 기회를 자주 가져야 한다. 도민의 숙원은 그 언제나 전북 발전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화

이부동의 정신이 필요하다.

본보가 사설을 통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역의 발전상이 시원치 않다고 했거니와 그 실상을 보자면 아쉬운 게 하나들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거니와 지금은 한 마음 한 뜻으로 지역 발전을 위해 매진할 때이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존심도 필요하다. 예전에 도세가 전북보다 못했던 지역들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전주의 절반도 안되던 수도권의 읍 단위 도시들이 이제는 전주를 이대로 내리다보고 있다. 충청도의 도시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주를 추월했거나 따라잡을 기세로 무섭게 발전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는 거주 인구가 나날이 불어나고 있는데 이쪽은 감소 상태라서 연간 서운한 게 아니다. 전북도의 책임이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예전에 전북도는 '스 크럼 행성'을 말한 바 있다. 그러므로 지역 발전을 위해 도내 각 시군의 입장을 대변하는 가운데 리더십을 나가야 한다. 그래서 함께 동진 힘으로 국가 균형발전의 틀을 동서로 돌려놓도록 해야 한다. 전북도는 각 시군의 민형처럼 되어서 그 역할을 한껏 발휘해 주기 바란다.

독자제언

청소년 비행에 대한 보호자 생활지도 필요성

점차 날씨가 따뜻해짐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이 길거리로 나오고 있다. 특히, 중·고등학교 청소년들이 학교를 마친 뒤 친구들과 여럿이 모여 새벽까지 시끄럽게 하는 탓에 주변 주민들에 의해 잦은 신고가 들어온다.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여 제지를 하여도 경찰관에게 말꼬리를 물며, 비웃는 듯한 행동을 쉽게 볼 수 있다. 청소년들의 이러한 행동의 원인은 과연 무엇일까?

제일 큰 요인으로는 가정적인 문제를 볼 수 있는데, 부모의 가정교육에 대한 무관심이 학생들의 청소년 비행을 방관하고 있다. 현재 부모들의 관심은 학교교육, 즉 자녀들의 학교 성적, 진학에 관심이 있을 뿐이다.

또한, 과거에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모델이 되었으나 지금은 그 모델이 점차 줄어들고 있으며, 처음과 나중에 일치되지 않는 양육태도나 부모의 행동, 부와 모간의

의견 불일치로 가치관 혼란을 초래하여 자녀로 하여금 사회적 발달의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 비행의 대처 방안으로는 가정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가정은 청소년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제 1의 생활공간이며 안식처이다.

어느 역할보다도 가정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청소년비행 예방의 책임과 임무가 있다. 첫째로는 가급적 부모가 아이와 대화시간을 많이 가지고 진지하게 들어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는 교육, 훈육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해야하며, 세 번째로 자녀들의 친구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며, 마지막으로 부모가 자녀들의 가치관 등을 바르게 이해하면 자녀교육에 상당한 도움이 되며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저항감도 없어질 것이다.

정확운 정음경철서산동지대대순경

독자제언

국민적 관심이 안전관련 비리 근절시켜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면 대개 안전에 대해서는 등한시 하는 경향을 종종 볼 수 있다.

이윤을 남기는 것에만 치중하여 공사 작업에 쓰이는 자재 값에 신경 쓰지 않고 값싼 자재들을 씌으로써 생기는 부실공사와 관리, 기름의 양을 불러 석유에 다른 것을 섞어서 파는 까짜 석유 제조 등 우리는 아직도 안전비리를 경험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이 근절되어야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부실공사에 문제는 더욱더 강력하게 단속을 함으로써 뿌리를 뽑아야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대표적 부실공사의 예로 몇 가지를 살펴보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우우 아파트 이렇게 세 건물이 붕괴된 사례를 들 수 있다.

특히나 삼풍백화점은 디스커버리 채

널에서도 소개 될 만큼 우리나라 대표적인 부실공사라고 볼 수 있는데, 초기단계에서 제대로 시공된 듯 하나 결국에는 붕괴되어 큰 인명피해를 낳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에도 자재 값을 줄이고 이윤만을 위해 안전을 등한시 하는 모습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할 부분이다.

안전이란 문제는 생명과도 직결되는 부분이므로 이를 어긴 대상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처벌되어야 함을 물론이고 안전비리가 해소되어야 국민은 보다 안전한 사회에서,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심이다.

국민들이 안전에 대해 보다 더 관심 살펴보면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우우 아파트 이렇게 세 건물이 붕괴된 사례를 들 수 있다.

이서우김재경철서산동지대대순경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